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나태주 시인-한국시인협회장

이제 우리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서는 바깥 생활을 아예 하지 못하게 됐다. 마스크는 자기 집 밖을 나서는 순간 그 무엇보다 먼저 챙겨야 할 물건이 되었다. 마스크 착용 없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없고 공공장소는 물론 공원이나 예식장 혹은 헬스클럽조차 드나들기 어렵게 됐다. 심지어 가게나 식당에 갈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제 마스크는 생활필수품이 돼 버린 지 오래다. 오죽하면 속옷 없이는 살아도 마스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말이 다 나왔을까.

그런데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니 언뜻 사람을 알아 보기 어렵고 대화하기도 힘들다. 더러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싶어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 특히 마스크를 쓴 여성분들은 이쪽에서 헤아려 알기가 쉽지 않다. 마스크가 입술과 코를 비롯한 얼굴 아랫부분을 모두 가리는 바람에 이마와 눈썹과 눈만 빼꼼히 나와 있는 모습으로는 상대방의 특징이나 표정을 읽기가 어렵다. 도무지 누구인지 가늠이 가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의 눈을 자주 들여다보게 된다.

마스크를 쓰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의사소통에

눈으로 말하기와 경청하기

있어 입술과 볼의 기능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우리는 소리로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지만, 입술의 움직임이나 볼의 움직임으로 먼저 상대방의 의중을 짚어 알기도 된다. 그런데 그 입술과 볼이 가려진 형편이니 답답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래서 다시금 깨닫게 된다. 인간에게 눈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 말이다.

눈이야말로 마음의 창이다. 영혼의 거울이다. 마음의 속내를 숨김없이 드러내 보여 주는 얼굴의 기관이 바로 눈이다. 마스크 차림으로 사람들과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전보다 훨씬 밀도 있는 대화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것은 실은 코로나19가 가져다준 역작용으로서의 효능이다.

더러 젊은 여자분들 말을 들어 보면 마스크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얼굴 화장을 하더라도 윗부분만 하게 돼 오히려 편해졌다고, 농담 아닌 농담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여자분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마스크 벗기를 꺼리는 추세이기도 하다. 이 또한 마스크가 가져다준 새로운 삶의 풍조 가운데 하나다.

“술은 입으로 들어오고/ 사랑은 눈으로 들어온다/ 사람이 살아서 알아야 할 것은/ 오직 이것뿐/ 나는 지금도 술잔에 입술을 대고/ 그대를 바라보며 한숨을 짓는다.” 이것은 내가 자주 외우는 시로, 아일랜드의 시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술 노래’라는 작품이다. 글의 제목은 ‘술 노래’이지만 글의 내용은 사랑이다. 마스크를 쓰면서 오랫동안 살아 보니 세삼 이런 시가 가까이 다가오는 요즘이다.

뭇별이자면, 최근 우리에게 생긴 것은 경청의 문화다. 경청이란 글자의 뜻 그대로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말이다. 물론 예전에도 경청하는 문화가 있긴 했다. 어른이 말하는 아이가 말하는 누군가 말을 하면 귀 기울여 정성껏 들었고 또 거기에 정성껏 반응했다. 그런데 세상이 복잡해지고 피차간에 하는 일이 바빠지다 보니 이야기할 때도 상대방의 말에 정성껏 귀 기울여 듣고 조심스럽게 말해 주는 대화 문화가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가 소원해지고 데면데면해진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사는 날들이 지속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경청하는 습관이 새로 생겼다. 그렇지 않으면 실수를 하게 되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나만 해도 문화 강연을 한 후 독자들이 책을 들고 와 사인을 해 달라고 할 때 그 이름을 물어 적어 주곤 하는데, 그러니 경청이란 것을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다. 다른 건 몰라도 이름을 잘못 쓸 때면 저쪽도 불편하고 이쪽도 민망한 일이 된다. 그래서 아예 복사지를 하나 준비해서 거기에 이름을 적어 달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쓰기를 생활화하면서 새롭게 생긴 삶의 형태이자 문화 풍조다.

그렇다. 이참에 우리도 이런 것들을 새롭게 익히면서 조금씩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으면 싶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의 형태를 바꿔 놓기는 했지만 이렇게 좋은 쪽으로도 바꿔 놓았노라 자위 아닌 자위를 해 보기도 한다.

종교칼럼



임형준 순천 빛바교교회 담임목사

낙엽이 떨어져 가을인가 싶더니 어느덧 강추위가 시작돼 겨울의 한 중심에 와 있다. 갑작스럽게 닥친 추위와 함께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그만큼 염려하는 마음이 커졌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행복하게 살아 보려고 노력하지만 뜻하는 바대로 되지는 않는 것이 인생이다. 살아 있는 것은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인간은 염려와 떨어져 살 수 없다. 염려는 불안에서 오는 감정으로 실존주의 철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은 불안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다고 보았다. 자신을 무엇이라고 규정할 근거도 없고, 그 무엇으로도 언제 어떻게 변화될 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불안한 존재라는 것이다.

불안의 두 가지 원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불안 속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으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 가운데 염려한다. 때로 이런 염려는 단지 염려하는 것에만 그치

염려와 불안의 시대

지 않고 두려움에 이르게 하며, 심지어는 절망으로 이끈다. 인간의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모든 아름다웠던 것들이 빛을 잃게 되고, 자신의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된다.

사람의 마음에 염려가 시작되는 것은 자신이 의존하는 대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즉 믿었던 것이 믿을 수 없게 되었을 때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의존의 대상은 당연히 물질이다. 사람들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을 물질로 조달한다. 따라서 물질이 없으면 세상에서 생존할 수도, 즐겁게 살아갈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미래의 불안을 대비하기 위해서 물질을 쌓아 비축해 두려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이야말로 가장 유효한 힘이고, 자신의 뜻대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을 최고의 의지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마음이 물질에 집착할 때 좋았던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건강했던 몸에 병이 들며, 자유투고 평화로운 마음마저 사라져 결국 불안이 더욱 증대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육체를 위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마 6:25)고 가르친다. 재물을 통해 염려를 해결하려는 마음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살아 가면서 많은 물질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재물이 모든 대비책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 지나친 염려로 물질을 욕망하는 것은 하나

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전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면 그분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 작은 불안도 크게 염려하게 되고, 물질에 대한 집착은 증가한다. 성경은 염려를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을 누리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렇지 못한 상태일 때 염려는 특별한 중압감으로 사람의 마음을 지배해 버린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더 나은 삶으로 초청하신다. 사랑할 때, 우리는 오감을 통해 알게 된다. 나뭇잎, 바람, 바다 그리고 햇빛, 모든 자연 속에 가득한 사랑의 빛은 어둠속에 웅크리고 있는 염려를 몰아낸다.

팬데믹의 현실을 운영처럼 여겨 굴복하면 노예처럼 살게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살아 있으나 죽은 것과 같이 진정한 삶이 아니다. 인간의 가장 큰 의무는 주어진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다. 현실을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여겨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펼쳐질 것을 기대하며 자신의 현재의 삶을 직면하는 것이다. 새로운 시작은 익숙한 인생의 길에서 풀쩍 뛰어오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염려에 익숙한 인생의 사이클에서 박차고 나와야 한다. 나의 두 발이 딛고 서 있는 염려와 불안과 결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두려운 것일수록 친구가 되면 힘이 된다. 이제 코로나와 같은 강력한 환경의 충격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새롭게 펼쳐질 삶을 기대하자.

기고

아이들에게 심리적 방역을



김홍식 일등중 교장-전 서부교육장

아침에 교문에서 아이들을 맞이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아이들과 인사를 주고받으며 하나하나 표정을 살핀다. 표정이 밝은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더불어 밝아지고 인사를 건네도 시원찮은 반응과 지친 모습을 보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혹시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었을까? 아침은 제대로 챙겨서 먹었을까?’ 등등.

올해 들어서 코로나19로 아이들의 학교생활이 영 말미아니다. 표정이 갈수록 어두워지는 것도 사실이다. 거리 두기로 인해 교실에 가면 짝꿍도 없이 한 명씩 떨어져 앉아 온종일 생활한다. 점심 시간에도 칸막이가 있는 식탁에서 한 방향만 바라보며 조용히 식사한다. 특별실 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더구나 소풍이나 수련회, 수학여행 같은 체험 학습은 물론이고 체육대회도 모두 취소되고 있다. 그뿐만이? 무대에 한 번 오르기 위해서 친구들과 그것도 경쟁하며 애쓰는 축제도 할 수 없는 처지다. 이러니 학교에서 무슨 흥이 나고 재미가 있겠는가.

아무리 코로나19 때문이지만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 감출 수 없다. 아이들이 한없이 안쓰럽다. 그리고 미안하다. 이런 아이들의 기분을 조금이라도 풀어

줄 방안이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청소년 단체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해왔다. ‘찾아가는 쉬는 시간 힐링 콘서트’를 해 주겠다고 말이다. 올해는 축제를 열지 못할 처지인지라 오히려 학교가 간절히 원하고 있던 바였다.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일정을 잡고 인근 학교에도 적극 권했다. 학교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고 아이들이 공연을 보고 즐기면 하는 무대이다.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소규모로 1·2부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가족이나 정서적으로 힘들고 위축된 우리 아이들에게 잠시나마 기분 전환하며 힐링하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기쁨이 컸다. 시작부터 아이들이 좋아하는 환상적인 댄스가 펼쳐졌다. 마술 공연, 색소폰 연주, 노래 등으로 짧지만 알찬 무대였다.

그런데 아이들의 반응은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띄엄띄엄 떨어져 앉은 탓도 있었지만 표정이 굳어 있다. 작년 축제 때 모습을 보더라도 이들 아이들이 아닌데 말이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더니 너무나 실감하게 하는 장면이다. 이런 현상이 어디 학교뿐이겠는가마는 ‘스쿨 블루’를 직접 목도하고 보니 생각이 달라진다. 이처럼 가라앉은 아이들의 기분을 살려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는 사회자와 출연진의 모습에서 공연을 뛰어넘는 따뜻한 마음을 느꼈다. 무대에만 있지 않고 학생 옆으로 찾아가 무릎을 꿇고서 눈을 맞추며 노래하고 연주하는 모습은 그 어느 공연에서도 쉽게 보지 못할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나무가 성장하면서 극심한 가뭄이나 폭탄을 겪으면 그 당시의 고통이 나이테에 그대로 남게 된다고 한다. 제대

로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거나 심하게 폭탄을 견디다 보면 그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이리라. 청소년기에 아무 구김살 없이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자유롭게 만끽하며 성장해도 어려운 세상이다. 학교에서 교실에서 친구를 알고 배우며 관계를 가꾸는 능력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실력인데 지금은 자꾸만 개인의 영역으로 움츠러들게 하고 있으니 이렇다가 차갑고 메마른 가슴으로 고립과 단절에 익숙해 지지 않을까 크게 걱정이 앞선다.

사람에게 반복되는 일은 습관이 되고 습관이 굳어지면 성격이 바뀔 수도 있다는 말이 있다. 틀림없이 맞는 말이다. 나아가 ‘성격이 운명’이라 했으니 이런 부정적인 일상이 반복되다 보면 나쁜 결과로 이어지거나 없을지...

‘누릴 수 있는 것만을/ 누리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누릴 수 없는 것들을/ 척척하게 신이여 / 그냥 빈 가지로 있었습시다/ 함께 살려낸 잎들 다 떨구고/ 바람은 차가움에 겨워/ 가지와 가지 사이를 오가며/ 울어 댈니다’(이근택 ‘겨울 은행나무’)

마치 추위에 떨고 있는 겨울 은행나무가 코로나19에 위축된 우리 아이들의 형편해진 모습 같아서 거리의 가로수 하나에도 눈길어 머뭇다.

앞으로 코로나19가 극복되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남아 있는 심리적 우울감을 훌훌 털어내는 일이 또 하나의 큰 숙제로 남는다.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서 이전의 밝은 표정을 다시 볼 수 있도록 물리적 방역 못지않게 심리적 방역 또한 절실하게 신경 써야 할 상황이다.

社說

코로나 비상 속 공무원들 음주 모임이라니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000명을 넘나들 정도로 확산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공무원들이 음주 모임을 갖는 등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12일 1000명을 넘어선 이후 16일까지 세 차례나 100명 선을 넘는 등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에서도 12월 들어 하루 평균 7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광주시는 ‘3차 대응행’을 막기 위해 수능 시험일인 지난 3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6일까지 4일간 다. 광주시는 ‘3차 대응행’을 막기 위해 수능 시험일인 지난 3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6일까지 4일간

아울러 분청과 5개 구청 및 시산하 공공기관 직원 등 1만3000여 명에 대해서는 모든 모임을 전면 금지하는 비상명령을 발동했다. 하지만 모범을 보여야 할 광주시청 일부 간부 공무원들은 시장의 비상 명령을 어기고 연말 음주 모임을 가져

몰의를 빚었다. 특히 4급 모 과장이 속한 부서인 시청 인근 식당에서 저녁 모임을 가졌는데 일부 직원들이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셨다고 한다. 시청 간부 공무원들의 음주 사례는 이밖에도 심심찮게 목격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는 음주 모임에 그치지 않고 금품 수수설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광주시는 최근 내부 청렴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동료 공무원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광주시가 뒤늦게 내부 감사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한번 헤이해진 기강이 바로잡힐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광주시는 국민권익위 청렴도 조사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술선수범해야 할 공직자들이 이처럼 헤이한 모습을 보인다면 공직 사회에 대한 신뢰도는 기대할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조심으로 돌아가 지중해야 할 것이다.

폭력에 시달리는 운동부 학생 적극 보호를

교육부가 지난 7·8월 전국 학생 선수 5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폭력 피해 전수조사 결과, 운동과 학업을 겸하는 전국의 학생 선수들 중 상당수가 언어·신체 폭력에 심각한 인권 침해에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총 16개 학교에서 38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는 모두 36명으로 확인됐는데 대부분 학생이었으며 그중 체육 지도자도 4명이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가 공개적인 설문조사로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보폭이 두려워 침묵하는 피해자들이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실제로 지난달 열린 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의 회정부장 의원은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체육계의 고질적 폭력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도 일부 광주 지역 학교 운동부에서 폭행·인권 침해가 끊이지 않았다”며 시 교육청 차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시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 광주에서만 총 14건의 학교 운동부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전남의 한 중학교에서는 운동부 코치가 지도하는 학생을 상습 폭행했는가 하면 한 학생은 훈련 과정에서 다쳐 수술을 받기도 했다.

문제는 학생 선수들의 인권 침해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당국은 매년 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가해 학생과 지도자들을 징계했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로 그쳤다. 학교 측의 허술한 대처 속에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비위 행위가 여전한 것은 이 때문이다.

학생 선수는 선수 이전에 학생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권리를 지켜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교육 당국은 전수조사 정례화와 수시 관리, 피해 상시 감시 시스템을 통해 학생 선수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폭력을 동반한 후진적인 훈육 방식은 끝내야 한다.

無等鼓

‘라이벌’은 같은 분야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서로 경쟁하는 맞수를 말한다. 역사를 돌아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무수한 라이벌들이 존재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라이벌의 의미가 가장 뚜렷하게 부각되는 분야는 승패를 겨루는 스포츠 세계다. 거기엔 때로는 민족 감정과 전쟁의 역사까지 맞물리기도 한다. 한낱 ‘귀위 바위 보’를 하더라도 절대 질 수 없다는 한·일전, 그리고 스페인 프로 축구인 FC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엘 클라시코’ 경기는 라이벌의 진면목을 잘 보여 준다.

토트넘의 두 공격수 손흥민과 케인의 콤비가 대표적이다. ‘현존하는 최고 공격 듀오’라는 찬사까지 받고 있는 이들은 이번 시즌에 리그 12호 골을 합작했고, 2015·16 시즌부터 호흡을 맞춘 이래 지금까지 32골을 터뜨렸다. 경기당 1골을 합작하는 지금의 추세라면 ‘합작 골’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울 기세다.

라이벌과 콤비

선수 개개인들만 보더라도 야구에서의 선동열과 최동원, 복식의 알리 와 포만, 골프의 우즈와 미켈슨, 축구의 메시와 호날두 등은 영원한 라이벌이다. 이들은 강한 승부욕으로 언제나 치열하게 대결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나면 서로를 인정하며 존중해 준다. 상대가 있었기에 자신이 발전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라운드는 ‘라이벌’도 있지만 ‘콤비’도 있다. 콤비는 함께 무엇을 행하기 위해 두 사람이 짝을 이루는 것, 또는 그렇게 짝을 이룬 두 사람을 말한다. 잉글랜드 프로 축구 프리미어리그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해 골을 넣고 있다. 손흥민의 리그 11골 가운데 8골이 케인의 도움이고, 케인의 9골 중 4골이 손흥민의 도움이다. 이렇게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으며 선의의 득점왕 경쟁을 펼치고 있다. 서로의 역할을 조정해 폭 넓은 시야와 발군의 감각으로 패스를 주고받는 이들의 활약을 보고 싶노라면, “축구는 머리로 하는 게임이다”라고 했던 요한 크루이프의 말이 실감난다. 라이벌의 존재는 자기 발전과 성공의 발판이 되고 좋은 콤비는 각종 기록을 풍요롭게 한다. /유재관 편집1부장 jkyou@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汝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 국 220-0515	문화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예 향 부 220-069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52	체 육 부 220-0621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전 남 본 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